

#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sup>1)</sup>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 목 차 〉

□ 알제리, 신항 계획 발표 .....	2
□ DPW, UAE 제벨알리항 확장계획 발표 .....	3
□ 영국 펠릭스토우항 컨테이너터미널 오픈 .....	4
□ 광저우시, 이우 시장의 2배 규모의 초대형 종합도매시장 건설 추진 .....	5
□ [공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신규사업 설명회 .....	6

1) 연락처: 김찬호 전문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mailto:chkim@kmi.re.kr)), 김홍매 전문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mailto:hisgrace@kmi.re.kr)),  
황현주 연구원(02-2105-2897, [julya7@kmi.re.kr](mailto:julya7@kmi.re.kr)), 전해경 연구원(02-2105-2982, [saeii@kmi.re.kr](mailto:saeii@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알제리, 신항 계획 발표

- 알제리는 신항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신항 입지 확정을 위한 입찰준비 시작
  -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추진 및 신항의 서비스 개시 시점에 대한 일정표는 밝혀지지 않음
  - 북아프리카 지역이 무역촉진 정책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알제리 항만의 현대화 및 확장은 알제리 정부의 정치적 과제로 부상
- 신항은 수도 알제(Algiers)와 알제에서 동쪽으로 215km 떨어져 있는 항만도시 테네스(Tenes) 중심부에 위치할 전망
  - 알제리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물동량 증가에 따른 DP World Djazair항<sup>1)</sup>의 체증으로 신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힘
  - 신규 해상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될 신항은 베자이아(Bejaia), 테네스, 오란(Oran) 등 기타 알제리 항만의 혼잡 또한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알제리 정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알제리 10개 상업 항만에서 처리한 화물은 약 120만 톤임

< 알제리 위치 >



< 알제 및 테네스 위치 >



자료: www.ifw-net.com, 2011.09.30.

김홍매 전문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1) 2008년 11월 DP World가 알제리 전체 대외무역량의 60%를 처리하던 알제항의 운영권(30년)을 획득하였으며, 알제항의 명칭은 그후 DP World Djazair항으로 개칭됨(국제물류위클리 제3호, 2009.5.13).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DPW, UAE 제벨알리항 확장계획 발표

- DPW 부회장 Mohammed Al Muallem은 “2011 중동 TOC 컨테이너 공급사슬 컨퍼런스”에서 제벨알리(Jebel Ali)항 확장계획을 발표
  - 확장공사를 통해 선석 400m를 신설하고 기존 처리능력(100만 TEU)을 1,500만 TEU로 늘릴 예정임
  - 제벨알리항 제2 ‘컨’ 터미널을 약 3,000m까지 확장하는 공사는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며, 완공 후 제벨알리항은 15,000TEU급 선박 6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항만의 효율성 제고와 선박의 재항시간 단축이 가능해짐
- UAE 지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1년 상반기에 610만 TEU를 넘었으며, 앞으로 확장될 제벨알리항은 날로 증가하는 역내 무역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계획
  - 제벨알리항은 이미 2008년 완공된 확장공사를 통해 500만 TEU의 처리능력을 추가함
  - 현재 제2 ‘컨’ 터미널에는 29기의 슈퍼 포스트 파나막스급(Super Post Panamax) 갠트리 크레인과 60기의 RMGC(Rail Mounted Gantry Crane)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심은 17m로 세계 최대 컨테이너 정기선을 수용할 수 있음
  - 또한 제벨알리항은 지난 4월 UAE의 항만 및 공항 최고위원회에서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을 준수하고 있는 최우수 항만으로 선정되어 무역활동의 보안과 안전에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 Jebel Ali항 전경 >



자료: www.dredgingtoday.com, 2011.09.26.

전혜경 연구원(☎ 02-2105-2982, saeii@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영국 펠릭스토우항 컨테이너터미널 오픈

- 영국 펠릭스토우(Felixstowe)항은 컨테이너터미널 오픈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을 수용 가능
  - 항만운영주체인 허치슨은 10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하고 1단계로 8, 9번 두 개 선석을 개통함
  - 이로서 매년 펠릭스토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화물은 금액으로 약 600만 £, 물량기준으로는 전국의 40% 이상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관계자들은 펠릭스토우항이 동아시아~ 유럽 간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유럽을 횡단할 때 3~4번 밖에 기항하지 않는 거점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2012년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0량 열차 3번째 철도 터미널이 건설 될 예정
  - 이를 통해 철도 터미널 처리능력이 두 배가 되어 향후 매년 추가로 100만TEU를 처리 할 것으로 전망
  - 현재 펠릭스토우항이 위치한 Haven Gateway 내에는 직·간접적으로 32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고용되고 있으며 확장 계획으로 인해 1,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고용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Felixstowe항 위치도 >



< Felixstowe항 전경 >



자료: www.porttechnology.org, 2011.09.28.

황현주 연구원(☎ 02-2105-2897, julya7@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광저우(廣州)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대형 종합도매시장인 광저우국제상품전시무역성(이하 '전시무역성')을 건설 중
  - 광둥(廣東)성은 OEM 제조산업, 가공무역, 소상품무역 등 세계의 공장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미용용품, 의류 등 품목별 도매시장이 발달해있으나 규모가 작고 분산되어 있어 경제력이 매우 약한 상태
  - 이에 소상품 시장이 발달한 이우(義烏)시를 벤치마킹하여 2009년에 광저우 남쪽 판위(番禺)구 화룽진(化龙镇)에 145억 위안을 투자하여 576만m<sup>2</sup> 규모의 전시무역성 건설중
  - 전시무역성은 LED, 전구, 자동차기계부품, 호텔용품 등 이우시와는 차별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전시, 무역, 연구개발, 금융서비스, 보세, 물류 등의 다양한 시설 및 기능을 구축할 예정
  - 전시무역성은 아시아 최대 규모인 파저우(琶洲) 전시장의 5배, 세계 최대인 이우시장의 2배 규모로 세계 최대의 종합도매시장임
- 전시무역성은 광저우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규모 물류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전시무역성이 건설되어 활성화 될 경우 연간 교역액은 1,500억 위안, 장기 바이어 60만 명,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예상하고 있음
  - 대표적인 소상품시장인 이우시의 소상품은 아시아, 중동,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되어 국제 물류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의 종합도매시장이 형성될 경우 광저우항을 이용하는 국제 물류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광저우에 진출한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따라서 전시무역성의 국제물류 수요 확보를 통해 주강지역 물류시장을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 광저우 국제상품전시무역성 조감도 >



자료 : 출장조사

이주호 전문연구원(☎ 02-2105-2890, jooho@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일시 : 2011. 10. 17(월) 14:30 ~ 18:00
- 장소 : 서울역 4층 대회의실
- 주최 : 국토해양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프로그램

14:30~15:00	등록 및 자료 배포	
	개회행사	
15:00~15:10	개회사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15:10~15:15	축사	전기정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15:15~15:20	주요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설명회 I	
15:20~16:00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신규사업 소개 -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16:00~16:20	질의 응답	
16:20~16:40	Coffee Break	
	설명회 II	
16:40~17:20	미국 아스토리아항 개발사업 소개	Jack Crider 아스토리아항만청장
17:20~17:40	질의 응답	
17:40~17:50	종합	

- 참가신청 :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홈페이지(<http://kilc.kita.net>) 알림마당 → “세미나 신청”에서 직접입력

※ 본 사업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반드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역에서는 KTX 타는곳(3층) → 3층 역장실 입구 → 엘리베이터이용(4층으로 이동) 경로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 KMI 국제물류위클리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